

# #모기업 #편의 전쟁 #화수분 #리더십

20세기 지배했던 해태·현대 왕조  
모기업 경영난 영향에 쇠락의 길  
4년 연속 우승 삼성 '돈+육성' 힘  
두산, 감독·세대교체 등 돋보여

5년 연속 한국시리즈(KS) 진출, 3회 우승, 2회 통합우승. 2019년 한국프로야구를 통합 제패한 두산 베어스는 '왕조'로 불려도 손색이 없는 위대한 업적을 이뤘다. 김현수(LG 트윈스), 민병헌(롯데 자이언츠), 양의지(NC 다이노스)등 연이어 주축 전력이 팀을 떠났지만 두산은 흔들림 없이 2010년대 후반 리그를 지배하고 있다.

두산이 강팀의 지위를 지키고 왕조로 발돋움한 힘에는 여러 배경이 있지만 성공적인 신인 스카우트와 육성, 자연스레 이뤄진 세대교체가 가장 돋보인다. 매우 어려운 이 선수권 구조를 만들고 유지시킨 프런트의 전문성, 그리고 김태형 감독의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 ●2020시즌 이후 두산 주축전력 연이어 FA 자격 획득

두산 왕조의 전성기는 언제까지 이어질까. 어떤 왕조도 영원하지는 못했다. 두산 역시 2020시즌 이후 이후 큰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 정수빈을 시작으로 최주환, 허경민, 이용찬 등 팀 핵심 선수들이 연이어 프리에이전트(FA) 자격을 획득한다. 공격적인 투자를 하지 않는 팀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대체 자원을 키워내고 합리적인 계약을 이끌어내느냐에 따라 팀의 역사가 달라질 수 있다.



1997년 한국시리즈에서 LG를 꺾고 V9 역사를 쓴 해태.



2004년 한국시리즈 2연패에 오른 현대.

## ●역대 왕조의 흥망성쇠

그렇다면 역대 왕조들은 어떻게 리그를 지배했고 어떤 이유로 정상에서 내려와야 했을까. 모기업의 변화, 달라진 외부 환경 등이 많은 영향을 끼쳤다.

KBO의 첫 번째 왕조는 해태 타이거즈였다. 1983년 첫 우승 뒤 1986년부터 1989년까지 4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1991년과 1993년, 그리고 1996·1997년에도 정상에 올랐다. 팀을 완벽하게 장악한 김응룡 감독의 공이 컸지만 해태가 장기간 정상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매년 공급되는 정상급 연고지 출신 유망주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광주일고, 군산상고, 광주 동성고 등에서 배출된 특급 신인들은

1차지명 숫자에 제한이 없었던 1980년대 중반까지 팀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았다. 1차지명 가능 인원은 1987년 3명, 1990년 2명, 1991년 1명으로 줄어들었지만 대신 고졸우선지명으로 전력보강이 가능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해태는 모기업의 경영악화 그리고 2000년 FA 도입과 함께 쇠락의 길을 걸었다.

## ●부자구단 현대의 비상과 몰락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막강한 전력을 자랑한 현대 유니콘스는 1998년과 2000년, 2003·2004년 정상에 섰다. 현대는 창단 때부터 막강한 자금력으로 아마추어 유망주를 사들이 했다. 현



2014년 4년연속 통합우승을 차지한 삼성.



2019년 통합우승으로 V6 달성한 두산.

금 트레이드도 주저하지 않았다. 그러나 모기업 현대그룹의 경영난 속에 역으로 FA 선수를 계속 뺏기며 몰락했고 야구 역사에서 사라졌다.

2000년대 초중반과 2010년대 전반기를 지배한 삼성 라이온즈 역시 왕조의 기를 마련했을 때는 현대와 같은 현금트레이드를 활용했다. 대형 FA계약도 주저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6년 우승 이후 외부 FA 영입없이 2011년~2014년 4년 연속 우승을 달성했다. 육성에 공을 들인 성과였다. 그러나 영원할 것 같았던 삼성의 시대도 모기업의 지원방식 변화, 세대교체 실패로 막을 내렸고, 올해까지 수년간 계속 부진했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 야구

3

2019년 10월 29일 화요일

스포츠동아

## 두산의 그물수비 뒤에 조성환 코치가 있었다



두산 조성환 코치

올해 한국시리즈(KS) 우승팀 두산 베어스와 준우승팀 키움 히어로즈의 희비가 엇갈린 가장 큰 부분은 수비였다.

키움은 승부처에서 크고 작은 수비 실책과 실수가 나왔다. 반면 두산은 내야진이 과감한 시프트 등 공격적인 수비를 펼치면서 상대 중심 타자를 압박했다. 4차전 9회말 허경민의 결정적 실책이 있었지만 수비진은 안정감을 되찾고 연장전에서 우승을 확정했다. 우승 직후 실책을 했던 허경민이 조성환 수비코치를 찾아 포용하는 장면은 여러의미를 담고 있었다.

조 코치는 2014년 은퇴 후 KBSN 스포츠에서 해설가로 성공적인 데뷔를 했다. 안정감 있는 목소리와 해박한 수비전술 설명 등이 빛났다. 방송 제작진의 신뢰도 두터웠다. 그러나 현장에 대한 갈증을 느꼈고 2018시즌을 앞두고 두산 수비코치로 변신했다.

조 코치는 이후 항상 "두산 선수들의 수비능력은 최고다. 내가 배우고 있다"며 스스로를 낮췄다. 그러나 선수들과 함께 호흡하며 굵은 땀을 흘렸고 끝없이 데이터를 파고들며 전술을 연구했다.

KS에서 두산은 최주환이 주전 2루수 역할을 맡아 과감한 시프트의 주인공 역할을 해냈다. 홈에서 바라본 기준으로 2루 왼쪽까지 최주환이 커버하는 극단적인 전술이었다. 실패했을 때 부담이 크지만 최주환은 "조 코치가 정해진 위치를 믿고 수비했다. 다행히 성공이었다"고 웃었다. 외야수들의 포구 위치 선정도 성공적이었다. 선수와 수비코치의 신뢰가 만든 작품들이었다. 두산 KS 우승의 '숨은 공신' 조 코치는 "이 선수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ing17@donga.com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 5년간 국대 지분 24%...‘한국야구의 요람’이 된 두산

두산 베어스가 2019시즌 통합 챔피언에 올랐다. 2015년부터 5연속시즌 한국시리즈(KS) 진출, 정규시즌과 KS 각 세 번의 우승에 두 차례 통합우승까지... 2010년대 후반의 최강팀은 명실상부 두산이다.

일부에서는 두산을 '왕조'로 칭하는 데 거부감을 드러내기도 한다. 사실 야구계에서 왕조라는 게 명확한 정의나 기준이 있

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에겐 두산이 왕조일 수도, 또 다른 누군가에겐 그저 강팀일 수 있다.

하지만 왕조 논란을 떠나 최근 두산은 한국 야구의 젖줄이자 요람이었다. 최근 5년간 한국야구가 치른 5개의 국제대회 총 선수수는 133명. 그 중 두산 선수는 32명으로 24%에 달한다. 그 다음으로 많은 NC

다이노스(16명), 키움 히어로즈(15명)를 합쳐도 두산보다 한 명 적다.

2015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 28명 중 8명이 두산 소속이었던 게 시작이다. 2017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도 28명 중 8명, 같은 해 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APBC)에서는 25명 중 4명의 두산 선수가 국가의 부름을 받았

5개 국제대회 133명중 32명 두산선수  
'프리미어12' 엔트리 28명중 7명 포함

다. 2018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AG)에서는 24명 중 5명, 그리고 2019 프리미어12 최종 엔트리 28명 중 7명이 두산 선수다. 당초에도 6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한 현희(키움 히어로즈) 대신 이용찬의 합류가 27일 결정되며 더 늘었다. 최근 한국야구의 요람은 분명 두산이다. 최익재 기자 ing17@donga.com

# 게임도 하고 경품도 행기는 자판기로 성공에 동참하라!

5000천대 완판 신화 Made in Korea 자판기 「스마트 게임 밴딩머신」

스마트 경품 게임 자판기에 성공한 남녀 커플

스마트 게임 밴딩머신

스마트 게임 밴딩머신

**2019년 미래형 스마트 밴딩머신 성공포인트**

- 1 와이파이 안드로이드 프로그램 운영체계
- 2 크기, 디자인, 기능을 모두 갖춘 제작 가능
- 3 게임 장착이 가능한 획기적이고 다양한 제품 구성
- 4 LED 영상홍보 및 광고 방영으로 매출 극대화
- 5 적립 포인트 카드 탑재 가능

**본사가 책임지는 확실한 설치장소**

- 고속도로 휴게소
- 대형 마트
- 백화점
-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
- 대형 콘도, 리조트
- 영화관 등등

다양한 장소 설치 준비

**스마트 게임 밴딩머신 사업주 모집!**

**1구좌(3대) 만으로도 월 150만원 수익이 보이는**  
**속편한 성공 사업! 설치하는 본사가 사업주는 관리만!**

- 하루 1대 당 매출 평균 15~20만원
- 전국의 인형뽑기 매장과 오락실 등에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 카드결제 시스템으로 점주 통장에 현금으로 즉시 자동 입금
- 스크린 광고판 부착으로 광고 활용효과 수익 극대화
- 육체적 피로와 인건비 걱정 없고 재고관리도 간단한 시스템

**스마트 밴딩머신 상담문의**  
**02)3437-2223**